

지식 기반 사회와 대학 교육의 미래상

공 성 진 |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0년경이면 현존하는 대학의 80%가 문을 닫게 된다.' 이 명제는 저명한 미래 학자 드러커(P. Drucker)가 지난 '9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실려 있는 것이다. 그의 예측대로 미국의 5,000여 개, 그리고 한국의 200여 개 대학 중 대다수가 문을 닫는다면 수십, 수만에 달하는 대학 교수도 전업을 하여야 될 것이다. 하긴 드러커는 이어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60만 명 중 약 10여만 명만 교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포스트모던의 조건'의 저자인 프랑스 사회학자 리오타드(J. Lyotard)도 '근대적 지식 생산의 보루인 대학이 이제는 사멸해 가는 제도가 아닐까.' 라고 회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의 회색빛 전망의 배경에는 상아탑, 진리 탐구의 기관이라는 대학의 전통적 역할이 CIT(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성격 변화에 의해서 그 본질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내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은 드러커나 리오타드의 예측과는 달리 21세기에도 고등 교육 기관이자 전문 지식의 생산, 유통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각국의 지도자들도 앞다투어 교육, 특히 고등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

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B. Clinton)은 '교육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라고 하였으며, 블레어(Blair) 영국 총리도 '영국이 21세기에 주역으로 부상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 있다.'고 설파하였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도 '21세기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교육 개혁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DJ도 그 성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임 초 교육 개혁을 통해 정보화 인력을 육성하고 지식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부서 명칭도 '인력자원부'로 개칭하기로 한 것도 세계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교육의 중요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오늘날 선진국 지도자들이 이렇듯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슈화시키는 까닭은 왜일까? 아마도 교육만이 지식 정보화라는 새 물결 속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핵심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이 여전히 지식과 정보 생산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한편 드러커나 리오타드의 예견이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율적 진리 탐구의 장으로서 대학은 그 의미가 소멸되어 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탈리(J. Attali)는 '21세기 사전'에서 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하고 있다.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면 상당히 변성할 기관, 여전히 고등 교육의 전당으로 잘 선별된 고객을 제공해 주는 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판매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생 교육, 혁신, 최첨단 기업체의 설립, 신문 출판, 특허 관리 등이다. 일부 큰 대학들은 세계적인 상표를 만들어 그 가치를 높이는 데에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보다도 더 많은 부를 매년 창출해 낼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체를 배출한 미국의 MIT 대학은 세계 24위의 경제 대국인 덴마크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고 있다."

아탈리가 제시한 21세기형 대학은 영원한 진리의 추구,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기원한 전통적 학문 공동체가 아니라 지식 산업의 첨단 기관이자 각종 고급 교육 서비스의 판매 기관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대학은 위기와 기회의 상호 긴장 속에서 그 정당성과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역할을 시험받고 있다. 다른 여타 조직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대학도 주요 트렌드의 하나인 지식 정보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의 흐름 속에서 변신을 위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I. 대학 변화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

CIT의 확산은 고등 교육 현장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행정이나 연구는 물론, 학생과 교수간의 대화와 개인적 업무를 포함한 상호 교류 행위가 전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과목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교육 시대가 불쑥 다가온 것이다.

멀티미디어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 공

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는 교육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변화는 앞으로 고등 교육이 맞이하게 될 변화의 폭과 규모에 비한다면 아직은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도 회자되기 시작한 「가상 대학」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대학 교육의 미래를 예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학의 학부 과정은 물론 석·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으며, 외국어 수학과 전문 자격증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이버 대학」은 학생들에게 집이나 직장은 물론 하다 못해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인 PC방에서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내용의 학습이 가능토록 하여 준다. 인터넷이라는 무한대의 정보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학습량도 실제 캠퍼스에 비해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 및 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교수의 전공 과목을 그 학교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원하면 들을 수 있게 된다. 지식과 정보가 공유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여 생각하면 지식 및 정보 서비스의 중심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이 감지된다.

수요자, 곧 학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 학습 계획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과 체계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해진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교육 공간의 확대와 접근성의 극대화는 토폴러(A. Toffler)의 주장처럼 고등 교육, 평생 학습, 재교육 및 특수 교육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잠재 수요 계층에게 자기 주도적이며 개별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점차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직무 교육의 필요성은 재교육과 평생 학습

“

이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학의 학부 과정은 물론 석·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으며, 외국어 수학과 전문 자격증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

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지식 정보화 및 네트워크 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사이버 대학은 이러한 교육 환경의 급격하고 급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교육 체제로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정부도 향후 등장할 사이버 교육 기관을 누구냐,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 교육 사회와 평생 학습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평생 교육 시설로 규정했다. 또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일정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문 학사 또는 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고등 교육 기관의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3월부터 정식으로 출범하는 사이버 대학이 선정되었음은 물론¹⁾ 향후 개교를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민간 단체만 하더라도 200여 곳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한 열린 교육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이버 대학이나 사이버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II. 보다 구체적인 대학의 형태 변화

C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형태로서의 사이버 대학은 참된 의미에서 열린 교육 체계를 가능케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연상할 수 있다.

만일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의 강좌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되면 그 과목의 수요는 증가하면서 상품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유통 판매 회사나 출판사 등에서 이 과목을 새로운 상품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을 지닌 멀티미디어 형태로 좀더 치장하여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일부 교수들의 강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산업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경쟁 자체도 심하게 되면서 좀더 편리하고 좋은 질의 지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게 될 것이다. 반면 대학과 거기에 속한 스타가 아닌 평범한 교수들은 드러커의 예견처럼 생존과 관련된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환언하면 대학 체제는 기존에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지식 및 정보의 생산과 유통 체계에 대한 심각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도 지난 12월 1일자로 삼성전자의 「삼성 반도체

1) 지난 6월 30일 교육부는 원격 대학 및 사내 대학 설치 계획서를 접수받아 8월 30일에 원격 대학 13개교와 사내 대학 1개교에 대하여 설치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들 중 9월 말일까지 원격 대학 12개교와 사내 대학 1개교가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다.

공과 대학(SSIT)이 사내 대학 차원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얻었는데 이는 「모토롤라」 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대학이 될 것이다.

모토롤라 회사에서는 회사 직원들의 재교육 기관으로서 사내 대학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은 미국이나 전세계적으로 관련 분야의 유명한 학자들의 강의와 수업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그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수진과 그들의 교육 과정에서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과 비교할 때 지식 및 정보의 내용과 수준에 있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월등히 우수한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위의 「삼성 반도체 공과 대학」은 단독으로 정식 학사 학위 과정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 여러 기업에서도 미국 유명 대학의 MBA 과정을 사내 교육과 연계하여 그 내용의 학습은 물론 그 곳의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으로 인한 가상 공간의 연계로 인해, 다시 말해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열린 학습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가능해진 현상들이다.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교수와 대학간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시나리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 대학에 어느 교수가 소속되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자신의 지적 자산을 토대로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타 기관과의 연구 프로젝트나 계약 관계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대학이 활성화 될 경우 특정 교수의 교과목이 그 교수의 것인지 혹은 그가 속한 대학의 것인지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교수가 대학을 위한 상품으로서 어떤 코스웨어를 개발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약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잠재적으로는 특정 대학의 과목들이나 지적 자산을 '프랜차이즈' 하는 개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교과목의 상품화라는 추세를 생각해

볼 때 현재와 같은 대학 구분-4년제·전문대·연구 중심·학부 교육 중심 등-이나 초·중등 학교와 대학의 구분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네트워크형 교육의 추세가 점차 통합(convergence) 형태로 전개된다는 것과 직결된다. 곧 방송, 케이블 TV, 컴퓨터 등의 여러 산업들이 멀티미디어로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거대한 교육 산업을 형성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위의 경향에 의거하면 고급 지식과 정보의 개발자는 이를 상품화하여 유통시키기 위한 경로도 소유코자 한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 제품을 통해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시장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 대학이나 출판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 등은 정보의 생산 및 제공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개발품을 유통시켜 줄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가 선결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열린 교육 체계가 갖고 올 수 있는 대학 체계 변화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학습인, 지식인이 되는 학습 공동체, 또는 지식 공동체의 출현이다. 지식 기반의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지식에 대한 관점이 개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 구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학습인들간의 '지식 공유'의 단계로 발전된다.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와 같은 이분법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지식 구성에 참여하고 나아가 구성된 지식을 서로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 DB(community database)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지식 구축 사회(knowledge-building society)」, 곧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심 역할을 대학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우리의 「지방 대학 육성 정책」도 이러한 목표 정향을 갖고 시행되어야 할 것

이다.

대학 중심의 지식 공동체 구현의 구체적 사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실(CSILE : Computer Supported Intentional Learning Environments)로도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모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협력적 작업을 통해 지식을 축적, 습득, 창출, 공유하고 나아가 활용하는 소위 '지식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우리 정부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 창출과 공유를 하는 지식 공동체로서의 지방 대학을 상정하려 한다면 하나의 모형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인터넷 기반 대학 체계의 몇 가지 문제들

이전 사회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화된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경제·경영의 개념이 다른 어느 것보다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 통합과 쌍방향 교류의 기능을 지닌 인터넷의 발달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사회의 경향과 접목되어 교육 산업의 부가 가치를 엄청나게 증폭시키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같이 대학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다른 나라의 고등 교육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언어, 보호 정

책,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같은 저항 요소들이 작동한다. 따라서 그 가능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논리 자체로는 매우 타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체계 변화를 결정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는 정보 기술과 시장 경제와의 제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반명제로서 대학과 '고등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본원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기도 한다.

가령 인문 학과 기초 학문의 고사, 비판적 잠재력의 소멸과 지식의 상업화, 공동체의 복리와 공익 추구에서 벗어나 개인의 영달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학의 물화(reification), 미국 등 주요 기초 학문 선진국에 의한 지적 식민화 등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얼마 전 서울대 인문·사회 과학 교수들이 중심이 된 「인문학 발전 위원회」의 발족이나 한양대가 2001년부터 도입하려는 인문·교양 학부의 재구조 등은 위의 경향들에 대한 안티테제임이 분명하다.²⁾

아무리 시대적 변화가 깊다고 하더라도 대학 교육에 시장 경제가 접목되어 소위 소수의 '스타 교수'가 생기고 그들에 의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대학 교육은 운동 경기와는 다르지 않은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세계적인 몇 명의 스타 선수들에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따라서 소수의 프로팀만이 생존하게 되는 상황과 비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도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인문·기초 학문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감지된다. 저명한 미래 예측 기관인 허먼(Herman) 그룹의 최근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학 졸업 후 약 7년 동안 보통 3~6개 정도의 직장을 옮겨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다가(sabbatical leave or mid-career retirement) 다시 직종을 바꿔 7~8년 정도 옮겨다니며 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접하는 환경 변화가 심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철학이나 역사, 문학 등을 통한 인간 연구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은 이 충격파에 잘 적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화의 시대에 교양학이 강조되는 것은 일견 아이러니할 수도 있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동전의 양면일 뿐 상호 보완의 공생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숙고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만 이것이 교수 사회나 대학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핑계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이버 대학 등 네트워크의 진보가 드러커의 예측처럼 캠퍼스를 사이버 캠퍼스로, 교수를 인터넷 마우스로, 그리고 책을 전자책으로 바꾸어 기존 대학을 소멸시킬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LA Times는 소위 재택 근무자(telecommuter)의 숫자가 오히려 최근 들어 줄고 있다는 컬럼을 싣고 있다. 직장 동료와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확인이 일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세삼 일깨워 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학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공존을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마치 인터넷 시대지만 책과 신문이 여전히 활개 치듯이 말이다.

학습은 궁극적으로 참여와 상호 교류를 요구한다. 이미 비디오가 교육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 교수를 제외한 수천 명의 평범한 교수가 직장을 잃게 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스타 교수는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면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숙제나 논문을 꼼꼼히 챙겨 주지도 않는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관람객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운동 경기 관람과 달리 교육을 받는 자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결국 제아무리 최첨단 CIT가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교수와 학생간에 참여와 상호 교류가 배제된다면 그것은 이전의 일방적 교육 매체의 역할이나 기능밖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상호 교류 가능한 매체의 기능을 활용해서든 교육에는 참여, 대화, 상호 작용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무리 우수한 학생들이라도 학부생들, 특히 저학

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계, 관리, 운영해 나갈만한 자기 주도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여전히 기존의 대학을 가상 체제로 운영되는 대학보다 더 선호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대학 환경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가움뿐만 아니라 사랑과 우정과 같은 심리적 온기와 운동 시합을 통한 신체의 뜨거움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밤늦도록 같이 모여서 과제에 대하여 혹은 다른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경험이 대학 생활의 매우 소중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에게 원격 교육, 가상 학습, 사이버 대학이라는 체계가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기존의 대학 환경이 제공하는 인간 공동체(person community), 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지식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최첨단 정보 기술을 대학 교육에 활용해야 하는가?' 라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떠올릴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대학의 질을 더욱 높이고 21세기형 지평인 네트워크형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인터넷이란 정보 기술의 적용이라는 사실 자체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 참여, 상호 작용을 높이고 학생들은 그런 정보 기술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관련 자료를 검색,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나 기타 전자 매체 등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CIT의 네트워크 기능으로 인해 학생들은 다른 교수의 강의법, 교과

내용 등에 대한 접촉이 매우 용이하게 되고 여기에 시장 경제 논리의 첨가에 따라 자연히 비슷한 전공과 과목들간의 비교, 선택, 평가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지금껏 교수의 역할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등한시되었던 교수법에 대하여서도 많은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21세기 초를 기능할 지구화(Globalization)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지식·정보화(information-alization)와 함께 가속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첫머리에 언급한 드러커와 리오타드의 예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문득**

공성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Claremont 대학원에서 정치철학, 미래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한백연구재단 소장, 미국 Claremont University The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객원 교수, MBC 통일 문제 자문 위원, KBS 객원 해설 위원, 중앙일보 밀레니엄 위원회 위원, 계간 『포럼21』 발행 및 편집인, 사이버 미래 문화 대학 설립자 등으로 활동중이며, 현재 현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공동체 의식과 시민운동』, 『미리가 본 통일 한국』 등과 편저로 『미래의 디지털 시나리오』, 『다시 그리는 세계 지도』외 다수가 있다.